

〈제 547호〉

-주간- **광주 경영계**

**KEF**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신세계

### ◆ 신세계 아카데미, 리뉴얼 오픈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지난 8일 최신 트렌드를 감안한 신세계 아카데미 강의실을 전면 리뉴얼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 60여 개 여름학기 강좌를 시작했다.

노래와 일반 강좌만 가능한 기존의 다목적 홀을 '워라벨 전용 강의실'로 신설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키즈 전용

강의실'도 신설했다. 키즈 전용 강의실은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며 감성을 자극하는 교육과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 놀이 등 다양한 강좌와 리뉴얼 오픈 행사도 진행했다.

## 광주은행

### ◆ '수리달이 환전·송금 페스티벌'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의 이름을 딴 '수리달이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이번 '수리달이 환전·송금 페스티벌'은 ▲환전·송금 경품이벤트 ▲비대면채널 사은이벤트 ▲환율우대 이벤트 세 가지로 진행된다.

환전·송금 경품이벤트는 행사기간동안 미화 300불 상당 환전을 하거나, 미화 1,000불 상당 해외송금을 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명) 고급 의류관리기, 2등(2명) 무선 청소기, 3등(100명) 모바일 커피음료 상품권을 증정한다.

비대면채널 사은이벤트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미화 300불 상당 이상을 환전 또는 해외송금하는 고객 중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음료 상품권을 전달한다.

환율우대 이벤트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입장권 또는 관람사진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주요 통화인 미달러, 일본엔화, 유로화는 50%, 중국위안화는 2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한다.

## 금호고속

###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5,000만원 구매 협약

금호고속(사장 이덕연)은 지난 5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동참하기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셔틀버스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금호고속이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금호타이어

### ◆ KIA 셀토스 타이어 단독 공급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는 지난 11일 기아차 신형 SUV 셀토스에 장착되는 16인치부터 18인치까지 전 규격의 타이어를 단독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업계 경쟁 등을 고려해 한 회사가 기본 타이어 전 인치에 단독 공급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로, 이번 금호타이어의 기아차 셀토스 타이어 공급은 물류비용 절감과 더불어 지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 간 협업 모델로 눈길을 끌고 있다.



## 해양에너지

###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시설 안전점검 총력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9일 이달 17일간 개최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도시가스 시설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형S-클래스센트럴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의 도시가스 시설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메탄 검지기를 활용하여 정압기실, 메인밸브박스, 선수촌 식당 등 가스누출여부 점검과 도시가스 시설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날 특별 안전점검에는 해양에너지 김형순 사장이 직접 참여해, 도시가스 시설을 꼼꼼히 살피는 등 선수촌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도시가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 추진단 구성, 대회기간 비상대책조직 운영, 가스시설 사전점검 및 비상상황 발생 대비 훈련, 특별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등 도시가스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지역·산업맞춤형사업 1기 수료식 개최〉

본회는 지난 9일 오후 2시 조선대학교 ECO부품설계 전산실에서 교육생 및 광주경충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품질관리 및 설계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1기는 CAD 및 CATIA, 품질관리, 공정관리, EPR생산/물류, 오피스 실무 등 전공심화교육과 이력서 클리닉, 실전모의면접, 현장강사 특강, 현장견학 등 교육을 진행하여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및 맞춤형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이날 수료한 교육생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관련분야로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 〈제2차 노동법 교육 개최〉

본회는 지난 11일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하루만에 근로기준법 마스터하기 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16일부터 적용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주요내용 및 쟁점분석 그리고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 강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연차유급휴가 등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법률이슈 및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경총과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포했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13회 생애설계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지난 12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해냄실에서 제13회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장년센터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일 중심의 생애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4가지 모듈을 활용한 집단상담 교육과 함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구직자 31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 <2019년 광주권역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본회 김봉길 부회장(차기회장)은 7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 광주권역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영계 대표로 축사를 했다.

김봉길 부회장은 축사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는 근로자가 많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해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경영계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무국 일지(7. 8 ~ 7. 12)

7. 8 (월)	● 택시업종 갈등예방 워크숍 참석	7. 11 (목)	● 제2차 노동법 교육 개최 ● 서구일자리위원회 워크숍 참석
7. 9 (화)	● 2018년 노사민정협력사업 인터뷰평가 ● 지산맛 1기 수료식 개최	7. 12 (금)	● 제1450회 금요조찬포럼 ● 중장년센터 제13회 생애설계프로그램 운영 ● 지산맛 2기 오리엔테이션 진행
7. 10 (수)	● 청년일경험드림 통합회의 참석 ● 광남일보 신사옥 입주식 참석		



### 〈제1450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7월12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정은상 맥아더스쿨 교장을 초청 <불안한 미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제1450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정은상 교장은 국내에 보급된 스마트폰 구입을 계기로 스마트폰,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워드프로세스, 드롭박스, 에버노트, 구글드라이버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을 배우고 익혔다.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공유한 첫 세대인 강사는 스마트 시대의 선봉에서 자신이 배운 SNS플랫폼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코칭하다가 맥아더스쿨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코칭하고 창직(創職)에 앞장서고 있다.

맥아더스쿨은 바로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통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인생이모작을 안내하는 사관학교인 셈이다.

인생후반 창작 7계명으로 1.돈보다 가치가 우선이다. 가치와 보람을 먼저 생각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2.조급하지 마라. 조급하면 앞이 잘 내다보이지 않는다. 3.독서와 글쓰기는 기본이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말과 글인 것이다. 4.남을 따라하지 마라. 나만의 유일한 비장의 무기를 발견하든지 또는 개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5.스마트 도구로 무장하라. 스마트폰에 익숙지 못하면 만사에 뒤처지는 시대다. 6.소셜 네트워크를 넓혀라. 소셜 인맥을 넓혀나가야만 자신이 하려는 일들을 표현할 기회가 많아진다. 7.시작이 반이다. 온근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할 때 성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2. 판례 동향

생활가전제품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수행한 CS닥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서울중앙지법 2019. 6. 13. 선고 2016가합524734 판결).

###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제조·판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 CS닥터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해체, 수리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수행해온 사람들임.
- 이 사건 회사는 지역별 사업부문 산하의 총 8개 서비스센터와 각 서비스센터 산하의 58개의 서비스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센터 및 서비스지점에는 센터장 또는 지점장, 책임조장, 조장닥터 및 일반 닥터가 근무함.
- CS닥터들의 업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사는 CS닥터들에게 사번(등록번호)을 부여하고, 회사의 로고가 기재된 유니폼과 명찰을 무상으로 제공, 사원증과 명함을 교부함.
  - 닥터들은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매일 오전 7시 30분경(토요일에는 오전 8시경) 각자 소속된 지점으로 출근하여 아침조회를 실시함.
    - ※ 회사는 2010. 6. 22. '서비스팀 미팅 표준안'을 제작하여 지점에 배포하고 각 지점 및 닥터들이 위 표준안에 따라 아침조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 닥터들은 오전 7시 30분경까지 소속 지점에서 신제품 전달 교육, 기술향상교육, C/S 교육, 직무교육 등의 교육을 받았고, 본사에서 실시한 신제품 교육, C/S 교육 등에도 참석함.
  - 회사는 '365 서비스'제도를 시행하여 각 지점에서는 각 조마다 1~2명의 닥터들을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정하여 당직제 내지 순번제의 형태로 휴일근무조를 편성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게 함.

- 회사의 콜센터는 일정한 장소를 담당하는 닥터에게 당해 업무를 배정하고, 업무배정 내역은 회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등록되며, 닥터가 소지하고 있는 PDA단말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자동적으로 전송됨.
- 닥터들은 업무를 완료한 후 제품 촬영사진, 업무 처리유형, 모델, 제약속 일시, 처리 내역 등의 처리결과를 모바일 기기에 등록하는데, 위 처리내역은 회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전송됨.
- 닥터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회사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점장, 센터장, 본사 순으로 닥터의 업무수행 내역을 모니터링함.
- 회사는 매년 닥터들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군에 대한 필기 및 실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주기적으로 닥터들을 대상으로 해피콜점수(고객의만족도 조사), 설치제품 이미지 등록율, NPS 현황, 약속서비스율, 당일처리율, 등록기간, 중복방문을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 등급(1~7등급)을 책정하여 계약기간 중에도 수수료조건을 변경하거나 평가결과가 우수한 닥터를 시상함.
- 회사는 닥터들에게 전동드라이버, 전기드릴, 청소기, 살균키트 등 약 28만원 상당의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약 5년마다 약 16만 원상당의 전동드라이버를 교체해 줌.
- 회사는 닥터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PDA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현재는 닥터가 개인 스마트폰에 회사의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되 월 10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함.

○ CS닥터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2. 판결요지

○ CS닥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구 분	세부내용
업무지시	<p>① 회사는 CS닥터들에게 통상적인 업무배정시간 외에도 긴급업무의 형태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으며, CS닥터들은 당직제 또는 순번제 등의 방식으로 휴일 및 명절에도 회사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함.</p> <p>② 회사는 콜센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 받은 서비스업무를 CS닥터들에게 배정하고 CS닥터들은 회사가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CS닥터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회사가 정한다는 점에서 회사가 CS닥터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음.</p>
출근의무	<p>① CS닥터들은 매일 소속 지점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그와 같이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 회사도 각 지점에서 7시 30분경 지점장이나 조장닥터가 일반 닥터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아침조회의 당연한 업무로 여기고 있음.</p> <p>② 회사의 콜센터는 평일은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업무를 배정하였으므로, CS닥터들은 이미 배정받은 업무를 모두 종료하였더라도이후 배정될지 모르는 다른 업무를 위하여 담당 구역에 머물거나 지점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등 고객 서비스접수 마감시간 이전에는 사실상 퇴근할 수 없었음.</p>
지휘·감독	<p>① 회사로서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설치 및 수리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CS닥터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만한 상당한 유인이 있음.</p> <p>② 회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매뉴얼 또는지침을 상세하게 준비하여 CS닥터들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CS닥터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하였고, CS닥터들이 회사의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CS닥터들의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함.</p>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수수료	<p>① CS닥터들의 담당구역에 서비스건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사업규모를 확장할 수없었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배정받지도 않은 업무를 하거나 서비스요금이 높은 업무만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도 없었음.</p> <p>② 일방 당사자의 통보만으로 수수료가 변경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이의가 없을 경우 수수료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위임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위임계약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임.</p>
신원보장	<p>① 회사는 고객들이 닥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닥터들이회사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사원증과 명함을 소지하게 함. 이로써 고객들은 CS닥터들을 회사가 신원을 보장한 회사의 근로자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CS닥터들을 단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임.</p> <p>② 회사 스스로도 CS닥터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CS닥터들의 결혼 여부,주거형태, 신장, 체중, 학력, 경력, 가족사항, 병력 및 현재 건강상태, 눈에 띄는 흉터나 수술자국, 문신 등이 있는지 여부, CS닥터들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지 여부, 범죄전력 등을 확인함. 일반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계약상대방의 상세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이는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확인하는 사항에 가까움.</p>

### 3. 시사점

-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건 법원은 기존 법리를 토대로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용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종속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최근 같은 법원에서 타사 전자제품 AS기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2160 판결)이 내려진 것과는 대조적임.
  - ※ 타사 AS기사들은 배정된 업무를 자유롭게 다른 기사에게 이관하거나, 회사의 교육이수가 필수가 아닌 점 등 사실관계에서 일부 다른 점이 있음.